

한국어의 주어 인상 구문 ‘-것 같다’: 존대 일치 현상에 관한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

최진선
(한국외대)

Choe, Jinsun. (2017). Subject-to-subject raising in Korean: Evidence from honorific agreemen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2), 143-16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vailability of subject-to-subject raising movement in the *-kes kathta* construction by making use of the subject honorification properties in Korean. A total of 107 Korean-speaking adults participated in a judgment task where they were asked to rate the acceptability of various sentences, including *-kes kathta* constructions with or without the honorific marker *-si-*. As expected, participants were most likely to accept sentences in which the use of *-si-* is triggered by the honorific subject noun phrase within the same clause. However, they also showed a tendency to accept the use of *-si-* on the matrix predicate *-kathta*, even when there seems to be no (honorific) grammatical subject in the matrix clause, suggesting that the honorific marker agrees with the honorific subject that has raised from the embedded clause to the matrix clause. Thus, these findings point to the possibility of raising movement in Korean, indicating that the embedded subject is able to move out of the clause to the matrix subject position to agree with the honorific marker on the matrix predicate.

주제어(Key Words): 주어에서-주어로의 인상 구문(subject-to-subject raising), 인상 구문 (raising constructions), 존대 일치(honorific agreement), 수용성 판단 (acceptability judgment)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수용성 판단을 이용해 한국어에 주어에서-주어로의 인상(subject-to-subject raising; 이하 ‘주어 인상’) 이동이 가능한지 실험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아래 (1)과 같은 구문은 (2)에서처럼 두 가지의 통사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주어 인상 구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 (1) 철수가 기쁜 것 같다.
 (2) a. 비인상: [철수가 기쁜 것] 같다.
 b. 인상: 철수가 [e 기쁜 것] 같다.

(1)을 (2a)와 같이 비인상 구문으로 분석한다면 내포절의 주어인 ‘철수가 이동 없이 그대로 원래의 자리인 내포절 내에 위치하는 것이고, (2b)와 같이 인상 이동을 가정한다면 내포절의 주어인 ‘철수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가 이동했다 하더라도 (2a)와 (2b) 사이에 표면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 이동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척도들을 제시하며 주어 인상 구문의 존재 유무를 검증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고안된 문장들에 대한 문법성 판정이 개개인의 연구자에 따라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어 인상 이동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한국어의 주어 인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술어의 존재 일치 현상을 활용하여 주어 인상 구문이라고 추정되는 ‘-것 같다’ 구문에 대한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의 수용성 판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의 주어 인상 구문이라고 추정되는 구문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한다. 제 3장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용성 판단 과제(acceptability judgment task)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 4장에서는 과제 결과에 대한 논의 및 통계적 분석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추가적 논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한국어의 주어 인상 구문이라고 추정되는 ‘-것 같다’ 구문을 논하기 전에 우선 전형적으로 주어 인상 구문이라고 분류되는 영어 구문인 (3b)를 살펴보겠다.

- (3) a. It seems that the rain is coming.

b. The rain seems to be coming.

(3)의 주동사인 ‘seem’을 대표적인 예로 갖는 영어의 인상 동사(raising verb)들은 외재논항을 갖지 않고 보문절만을 논항으로 취하는 일항 술어이다. (3a)는 비인상(unraised) 구문으로 보문절인 ‘that the rain is coming’이 ‘seem’의 의미역을 부여받고, 이 때 비의미역 위치인 ‘seem’의 주어 위치에 허사 ‘it’이 나타난다. 하지만 인상(raising) 구문인 (3b)에서는 ‘seem’ 동사가 부정사절과 함께 나타나면서 부정사절의 주어인 ‘the rain’이 원래의 위치에서는 격을 받지 못하므로 격 여과(Case Filter; Chomsky, 1981)에 따라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올라가는 현상을 인상 이동(raising movement)이라고 부른다(Postal, 1974; Rosenbaum, 1967).

Choi(1988)는 (4)와 같은 ‘-것 같다’ 구문이 영어의 주어 인상 구문 (3b)와 대응되는 한국어의 주어 인상 구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의 구문들을 제시했다 (Choi, 1988, p. 162).¹⁾

- (4) 비가 올 것 같다.
- (5) a.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 아니하다.
 b. 비가 도무지 올 것 같지 아니하다.
 c. 비가 도무지 [e 올 것] 같지 아니하다.

(5a)에서 부사 ‘도무지’는 부정 동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부정 동사가 없는 내포절이 아닌, 부정 동사가 존재하는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로 보인다. 하지만 (5b)의 부사 ‘도무지’는 내포절의 주어인 ‘비’와 내포절의 술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절의 부사가 내포절 내로의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5c)와 같은 통사적 분석의 근거가 된다. 즉, 내포절의 주어인 ‘비’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인상된 경우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최진선(2016) 역시 부정극어의 절 동료조건을 활용한 수용성 판단 실험을 통해 ‘-것 같다’ 구문이 영어의 주어 인상 구문과 대응하는 한국어의 구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수용성 판단 과제는 한국어 원어민 화자 172명을 상대로 하였고, (6)의 세 가지 구문들을 실험 자극 구문으로 사용하였다. (6a)와 같이 부정극어 ‘아무도’가 부정어와 함께 내포절에 위치하는 구문들은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에 의해 좋은 문장들로 판단되었지만, 부정어가 주절에 위치하는 (6b), (6c)의 경우 부정극어가 내포절의 주어인 구문(6b)이 목적어인 구문(6c)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되었다.

1) 한편 이정식(2010)은 존재 일치 및 부정극어의 인허 현상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내부분열문인 ‘-것이다’ 구문에 대해 주어 인상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것 같다’ 구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

- (6) a. [아무도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b. 아무도 철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c. 철수가 아무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즉, (6b)에서의 내포절 주어인 부정격어 ‘아무도’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상승하고 이로 인해 주절의 부정어에 의해 허가되면서 한국어 화자들은 이러한 구문에 대해 높은 용인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에 주어 인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경험적 검증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다.

반면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존재 일치 현상이라는 척도를 사용해 주어 인상 유무를 검증하려 했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의 직관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Choi(1988)는 존칭어미 ‘-시’가 (7a)와 같이 내포절의 동사에 첨가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7b)와 같이 주절의 동사에 나타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보았다(Choi, 1988, p. 162)

- (7) a. 선생님이 피곤하신 것 같다.
 b. ?선생님이 피곤한 것 같으시다.

엄홍준·김용하(2009) 역시 동일한 척도인 존재 일치 현상을 활용하여 (8)과 같은 구문에서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엄홍준·김용하, 2009, p. 590).

- (8) a.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b.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간 것 같으시다.

엄홍준·김용하는 내포절의 주어 ‘할아버지’가 존대를 요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내포절의 술어인 ‘가다’에 존칭어미가 첨가되는 경우인 (8a) 구문은 정문으로 보았다. 하지만 존칭어미가 내포절이 아니라 주절의 술어에 붙는 경우인 (8b)는 비문이라고 하였다.²⁾ 그리고 이러한 일치관계를 근거로 하여 한국어에서의 ‘-것 같다’ 구문은 주어 인상 구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와는 달리 엄홍준(2010a)의 연구에서는 (8b)와 같은 구문이 정문이라고 가정하였고 이러한 가정 아래, (9b) 구문에서처럼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인상했을 때 남는 흔적이 어떠한 유형인지 살펴보고 있다.

2) 하지만 엄홍준·김용하(2009)는 그들과는 다른 직관을 가진 한국어 화자도 제법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9) a. [pro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b. [할아버지께서 [[pro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엄홍준(2010a)에 따르면 (9a)는 비인상 구문이고, (9b)는 인상 이동이 일어난 구문으로 ‘할아버지께서’가 내포절의 주어에서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했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인 ‘같다’에 존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즉, 엄홍준(2010a)은 한국어에 주어 인상 구문이 존재하고 이 경우 나타나는 흔적은 영어에서처럼 명사구 흔적이 아닌 pro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주어 인상 이동의 흔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주어 인상 구문은 명사구의 이동이 아닌 pro가 복사되는 복사 인상(copy-raising) 구문이라고 주장하였다(엄홍준, 2010a,b).

요약하자면, (7b), (8b), (9b)의 구문들 모두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 존재를 요하는 명사가 위치하고 주절의 술어인 ‘-것 같다’에 존칭어미가 첨가된 동일한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자들이 직관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용인도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의 직관이나 분석을 이용하기 보다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되는 구문에 대한 수용성 판단 과제를 실시해서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의 직관이 엇갈리는 문장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주어 인상 구문으로 추정되는 구문인 ‘-것 같다’ 구문에 존재 일치 현상을 시험해 본 문장들이다. 한국어의 존재 일치 현상 중 하나의 유형으로 주어 존재(subject honorification)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주어 자리에 위치한 성분이 존재를 요할 경우 술어에 존칭어미인 ‘-시.’가 첨가되는 일치 현상을 의미한다(e.g., Brown 2015; Choe, 2004; Sohn, 1999). 주어와 술어 간의 존재 일치 현상의 특성 및 제약을 다음의 구문들을 통해 알아보자.

- (10) a. 할아버지가 오셨다.
 b. *소년이 오셨다.
 c. 할아버지가 왔다.
 d. 소년이 왔다.

(10a)는 주어가 존재를 수반하는 ‘할아버지’이므로 술어에 존칭어미 ‘-시.’가 첨가되며 주어-술어 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존칭어미가 술어에 위치한 (10b)의 주어인 ‘소년’은 존재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는 존재 불일치 현상을 보이며 비문으로 판정할 수 있다. (10c) 구문의 경우, (10a)와 같은 주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어에 존칭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도 정문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주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적인(asymmetrical) 특성 때문이다. 즉, 존칭어미 ‘-시.’의 첨가는 존재를 수반

하는 명사가 문법적인 주어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존칭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어가 반드시 존대를 요하지 않는(non-honored) 명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존대를 수반하는 주어에 대한 존칭어미 ‘-시’ 첨가 여부는 선택적(optional)인 것이다(e.g., Choe, 2004).

물론, 한국어의 존대 일치 현상에 대해서 이를 특정한 한 논항과 동사와의 일치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e.g., Kim & Sells, 2007; Lim, 2000). 예를 들어 Kim and Sells(2007)은 존칭어미 ‘-시’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해당 문장의 통사적 주어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Yun(1993) 또한 (11)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하면서 존칭어미 ‘-시’는 문장의 주어가 아닌 문장의 주제라는 보다 넓은 담화적 개념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Yeon & Brown, 2011, p. 189; Yun, 1993, p. 11).

- (11) a. 할아버지는 방이 크시다.
b. 할아버지의 코에서 코피가 나신다.

이는 결국 한국어의 존대 일치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부 연구자(e.g., Choe, 1988; Kang, 1988; Koopman, 2005; Yun, 1993)는 이를 영어의 주어-술어 일치 현상에 대응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반면 이러한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관점(e.g., Choe, 2004; Brown, 2011; Kim & Sells, 2007; Sells & Kim, 2006)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 익명의 심사자는 (11b)는 정문이지만 (11a)는 비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즉, 다른 심사자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11)과 같은 구문들은 화용적인 요소들이 개입된 구문들로 특정 문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수용성 판단 과제는 이러한 화용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 특정한 문맥 없이 개별적인 문장 하나씩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1)과 같은 구문들을 화용적 영향을 받는 별도의 자료로 취급하고 한국어의 존대 일치 현상이 문법적 주어와 존칭어미 ‘-시’의 일치 관계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존대 일치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의 ‘-것 같다’ 구문에 과연 주어 인상 이동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참여자

실험 참여자 집단은 총 112명(남자 45명, 여자 67명)의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들로서, 실험 참여에 대해 수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 중 5명의 자료는 아래에 자세히 언급한 데이터 스크리닝 기준에 따라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107명의 자료가 결과 분석에 이용되었다.

3.2. 실험 재료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실험 문항(experimental items), 통제 문항(control items), 그리고 필러 문항(filler items)을 합하여 총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문항에 사용된 구문들은 모두 ‘-것 같다’ 구문으로서 주절과 내포절을 포함한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었고 내포절의 주어로는 존재를 수반하는 명사들(e.g., 할아버지, 선생님, 교수님, etc.)이 위치하였다. 실험 문항은 독립 변인인 존칭어미의 위치와 유무에 따라 2x2 집단 내 실험(within-participants)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총 네 가지의 문장 유형이 고안되었다. 실험 문항의 유형별 예문은 표 1과 같다.

표 1. 2x2 실험 문항의 유형

유형	존칭어미의 위치 및 유무		예문
	내포절	주절	
1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으시다. [NP... V- HON] seem- HON
2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다. [NP... V- HON] seem
3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으시다. [NP... V] seem- HON
4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다. {NP... V} seem

첫 번째 유형의 문항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주어 인상의 존재 유무와 직결되는 문항들로서 주절의 술어인 ‘-같다’와 내포절의 술어에 모두 존칭어미가 사용된 문장들로 이루어졌다. 만약 주어 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를 수반하는 주어에 없는 주절에 대한 존칭어미의 사용은 존재 불일치 현상으로 여겨져 이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한국어에 주어 인상 이동이 존재하여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한다면 내포절의 술어뿐만이 아닌 주절의 술어에도 존재 일치가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내포절의 술어에만 존칭어미가 사용된 문장들로, 내포절의 주어가 존재를 수반하는 명사임을 고려할 때 이 유형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이와 반대로 주절의 술어에만 존칭어미가 사용된 문장들이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존칭어미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문장들로 구성되었다. 즉, 세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은 내포절의 술어에 존칭어미가 사용되지 않는 문항들로 존대를 수반하는 주어에 대한 존칭어미가 생략된 문장의 용인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상 네 가지 유형의 실험 문항 20세트로 구성된 문장들은 라틴 스퀘어 설계(Latin square design) 방식으로 4개의 리스트로 나뉘어 각 리스트마다 각 유형의 문장이 5개씩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 문항의 정문 및 비문 판단에 대한 비교를 위해 60개의 통제 문항을 추가하였다. 통제 문항들은 다양한 단문 또는 복문들로 이루어졌으며 (12)와 같은 문법적인 문장 30개와 (13)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 30개로 구성되었다.

(12) 철수는 시험의 우승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13) *아이가 날아가는 공을 잡혔다.

이중 5개의 문항은 존대 불일치 현상을 보이는 (14), (15)와 같은 유형의 비문으로 이루어졌다.

(14) *소년이 학교에 가셨다.

(15) *아이가 할아버지를 초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개의 필러 문항이 포함되었다. 필러 문항은 본 연구와 관련 없는 다른 실험 연구를 위한 구문들로 구성되었고, 이는 단순히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질문을 숨기기 위해 포함되었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각각 총 100개의 문항(실험 문항 20개 + 통제 문항 60개 + 필러 문항 20개)이 주어졌다.

3.3. 실험 절차

본 실험은 5단위 리커트 방식(five-point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수용성 판단 과제(acceptability judgment task)를 실행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따라 하나의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한국어 문장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5점 척도에 따라 '아주 부자연스러움'에서 '아주 자연스러움' 사이의 값으로 표시하였다(1=아주 부자연스러움, 2=다소 부자연스러움, 3=보통, 4=다소 자연스러움, 5=아주 자연스러움). 참여자들에게는 실험 중간에 이전 문항으로 되돌아가 답을 고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실험 시간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모든 참여자들이 약 20-30분 내에 과제를 완료하였다.

4. 연구 결과

결과 분석에 앞서 데이터 스크리닝을 실시한 결과 총 5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데이터 스크리닝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통제 문항 60개 중 절반인 30개는 정문이고 나머지 30개는 비문이었으므로, 30개의 정문에 대한 평균값이 3점(보통; 중립 값) 미만일 경우와 30개의 비문에 대한 평균값이 3점 이상일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참여자를 모두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5명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총 107명의 참여자가 최종 결과 분석에 포함되었다.

아래의 표 2는 실험 문항의 네 가지 유형과 통제 문항의 두 가지 유형(정문과 비문)에 대한 예문 및 각 점수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³⁾

표 2. 유형별 예문과 점수 비율 (%)

조건	예문	1점	2점	3점	4점	5점
실험 문항: 유형 1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으시다.	6.9	23.2	25.0	21.7	23.2
실험 문항: 유형 2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다.	0.7	7.9	13.3	27.1	51.0
실험 문항: 유형 3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으시다.	8.8	23.4	24.3	20.9	22.6
실험 문항: 유형 4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다.	4.9	17.2	21.3	24.3	32.3
통제 문항: 정문	철수는 시험의 우승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1.5	4.7	11.0	24.3	58.5
통제 문항: 비문	*아이가 날아가는 공을 잡혔다.	53.0	24.5	8.4	6.4	7.8

단위: %

(1점=아주 부자연스러움, 2점=다소 부자연스러움, 3점=보통, 4점=다소 자연스러움, 5점=아주 자연스러움)

다음으로 그림 1은 표 2의 자료를 분기적 누적 막대형 차트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의 x축은 각 점수별 비율을 의미하고 y축에는 여섯 가지의 유형이 표시되어 있다. x축의 가운데 위치한 0을 기준으로 막대가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참여자들이 해당 유형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판단한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왼쪽으로 치우친 막대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정

3)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문의 비수용도(1.5%)에 비해 비문의 수용도(7.8%)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제 문항의 비문 평점이 높은 것은 오히려 실험 구문과의 차이를 볼 때 있어서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비문에 대해 더욱 엄격한 스크리닝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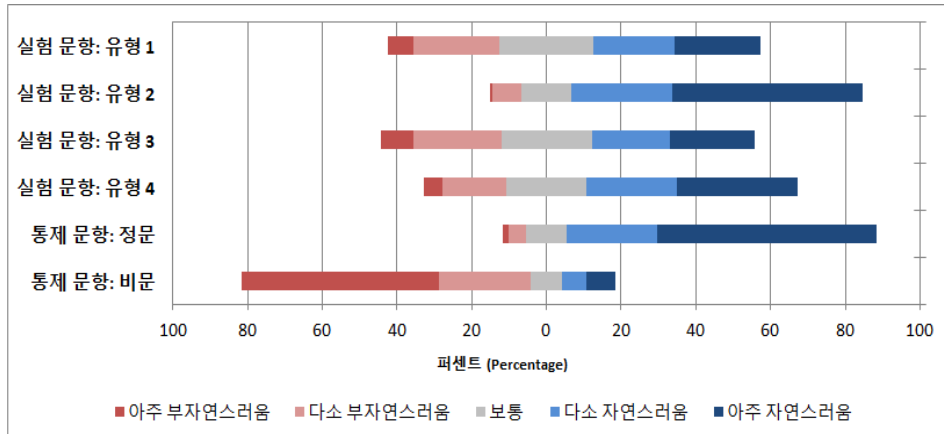


그림 1. 유형별 점수 비율

표 2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 문항의 정문들은 예상대로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들로 판정되었고 이와 반대로 통제 문항의 비문들은 용인도가 매우 낮은 문장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통제 문항에 대한 결과를 실험 문항의 네 가지 유형들과 비교해보면, 내포절의 술어에만 존칭어미가 첨가된 구문인 유형 2가 통제 문항의 정문에 대한 결과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험 문항의 유형 2는 정문과 같이 좋은 문장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절의 술어에 존칭어미가 존재하는 구문인 실험 문항의 유형 1과 유형 3은, 유형 2보다는 낮은 판정 점수를 보이지만 두 유형의 막대 모두 정문과 비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점수 비율상으로 볼 때 비문보다는 정문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절과 내포절 모두 존칭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실험 문항 유형 4의 경우, 이 역시 유형 2보다는 낮은 용인도를 보이지만 유형 1과 3보다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정문의 점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각 유형별 평균 점수를 비교한 통계적 분석과 함께 아래에 자세히 제시될 것이다.

우선 네 가지 유형의 실험 문항에 대한 문법성 판단을 서로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각 유형별 판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그림 2와 같다.

표 3. 실험 문항에 대한 유형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유형	존칭어미의 위치 및 유무		예문	평균 점수	표준 편차
	내포절	주절			
1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으시다.	3.31	1.04
2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다.	4.20	0.72
3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으시다.	3.25	1.02
4	-	-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다.	3.62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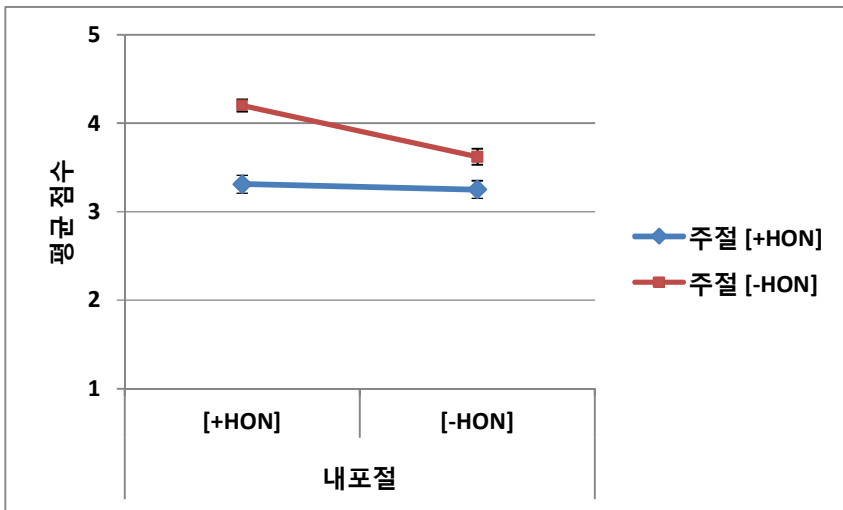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문항에 대한 유형별 평균 점수

이상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x2 반복측정 이원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을 실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내포절의 존칭어미 유무에 대한 주 효과와 주절의 존칭어미 유무에 대한 주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내포절: $F(1, 106) = 46.41, p < .001$; 주절: $F(1, 106) = 88.28, p < .001$). 즉, 실험 문항의 내포절 또는 주절에 대한 존칭어미 유무가 참여자들의 문장 판정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포절에 존칭어미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판정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절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존칭어미가 첨가될 때보다 첨가되지 않을 때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정되었다. 더불어 존칭어미의 위치와 유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106) = 32.31, p < .001$). 이러한 상호작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비교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절에 존칭어미가 첨가된 경우(유형 1과 유형 3)에는 내포절의 존칭어미 유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228$). 반면 주절에 존칭어미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유형 2와 유형 4), 내포절의 존칭어미 유무 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였다($p < .001$). 즉, 관찰된 상호작용 효과는 존칭어미가 내포절에만 첨가된 유형 2의 구문이 다른 유형의 구문들보다 월등히 높은 판정을 받은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실험 문항 네 가지의 유형을 단순히 비교한 것으로, 유형 2의 구문이 다른 구문보다 더욱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다른 유형의 구문들이 비문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음 분석으로 이 네 가지 유형의 평균 점수를 중립값인 3점과 비교하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정(one-sample t -test)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실험 문항에 대한 단일표본 t -검정 결과

유형	존칭어미의 위치 및 유무		평균 점수	통계치		
	내포절	주절		t	df	p
1	+	+	3.31	3.08	106	.003*
2	+	-	4.20	17.13	106	.000**
3	-	+	3.25	2.56	106	.012*
4	-	-	3.62	6.61	106	.000**

* $p < .05$, ** $p < .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유형의 평점은 중립값인 3점과의 비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네 가지 유형의 구문 모두 3점인 '보통'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을 모두 포함한 통제 문항의 결과를 이용해 실험 문항의 수용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는 통제 문항의 두 가지 유형인 정문과 비문 조건에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판정 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통제 문항의 정문과 비문은 각각 평균 점수 4.33과 1.92로, 정문은 매우 높은 수용도를 보인 반면 비문은 매우 낮은 수용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통제 문항의 결과를 표 3에 나타난 실험 문항의 각 유형별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3에 정리하였다.

표 5. 통제 문항에 대한 유형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통제 문항	예문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정문	철수는 시험의 우승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4.33	0.53
비문	*아이가 날아가는 공을 잡혔다.	1.92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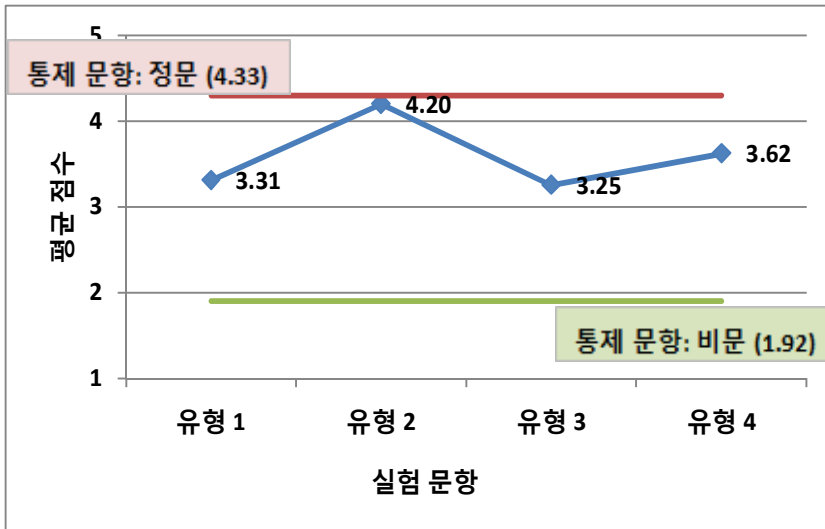


그림 3. 실험 문항과 통제 문항의 유형별 평균 점수

실험 문항과 통제 문항의 유형별 문법성 판정을 비교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실험 문항의 모든 유형 평점이 통제 문항의 정문과 비문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들 구문이 모두 중립값인 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복측정 일원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 결과, 여섯 조건(실험 문항의 네 가지 유형과 통제 문항의 두 가지 유형) 사이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19, 337.94)=306.90, p < .001$). 또한 두 조건 씩 비교한 사후 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all $ps > .001$). 첫째, 주절과 내포절에 모두 존칭어미가 첨가된 실험 문항 유형 1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으시다”의 평점과 주절에만 존칭어미가 첨가된 실험 문항 유형 3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으시다”의 평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996$). 두 번째, 내포절에만 존칭어미가 나타나는 실험 문항 유형 2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다”와 통제 문항의 정문들은 한정적으로 유의한 (marginally significant) 평점 차이를 보이며($p = .079$), 이는 곧 실험 문항 중 유형 2의 구문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통제 문항의 비문 중 존재 불일치 현상을 보이는 비문들(e.g., *소년이 학교에 가셨다)의 평점 결과를 살펴보자. 이 비문의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한국어에 주어 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실험 문항의 유형 1도 이와 같은 (존재 불일치 현상) 이유로 비문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형 1의 구문은 주절의 존칭 어미에 대응하는 존재를 요하는 주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 불일치 현상으로 판단될 것이다. 따라서 두 구문의 평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참여자들이 본 실험의 핵심적 조건인 실험 문항 유형 1의 문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의 그림 4는 실험 문항 유형 1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평점을 통제 문항의 정문, 비문, 그리고 존재 불일치 비문에 대한 평점들과 다함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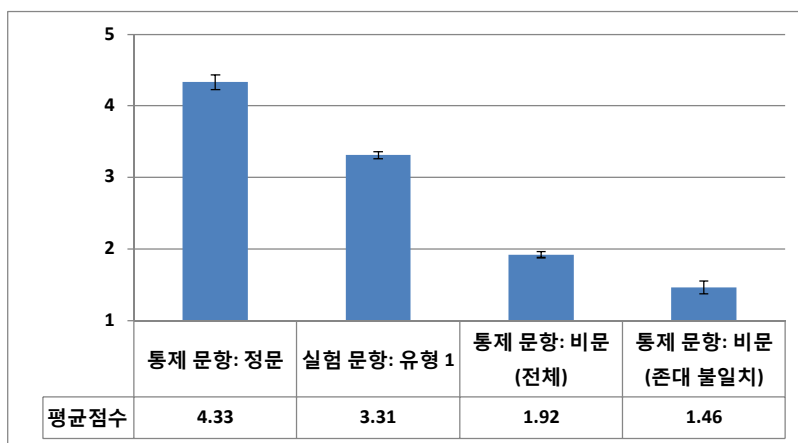


그림 4. 실험 문항과 통제 문항의 유형별 평균 점수 - 실험 문항 유형 1을 중심으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재 불일치 현상을 보이는 비문의 평점은 1.46점으로 통제 문항 전체 비문의 평점인 1.92점보다도 더욱 낮은 판정($p < .001$)을 받음으로써, 한국어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구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은 존재를 수반하는 주어가 없는 구문에서의 존칭 어미 사용에 대해 매우 낮은 용인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비해 실험 문항 유형 1(e.g.,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신 것 같으시다*)은 존재 불일치 비문과 마찬가지로 주절의 술어에 첨가된 존칭 어미와 일치 현상을 보이는 주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불일치 비문은 물론 통제 문항의 모든 비문보다도 더욱 높은 판정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all $ps > .001$).

이 결과는 한국어 화자들이 실험 문항 유형 1의 구문을 동일한 유형의 비문보다 오히려 정문에 더 가깝게 판정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곧 존칭 어미를 요구하는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인상되면서 주절에서 존재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요약 및 결론

한국어의 인상 이동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은 편이지만 그 중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는 주어 인상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형, 즉 목적어로의 인상과 같은 이동의 연구들(e.g., Kim & Kim, 2003; Lee, 2007; O’Grady, 1991; Yoon, 1989; Yoon 20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 사이에도 특정 구문에 대한 연구자들의 직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 인상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경험적인 실험을 통해 한국어 원어민 화자들이 존칭어미가 첨가된 ‘-것 같다’ 구문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것 같다’ 구문에 대한 수용성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내포절 안에서만 존재 일치가 이루어진 (16)과 같은 구문이 실험 문항 중 가장 용인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Hong(2009)의 주장처럼 이를 한국어의 주어 비인상 구문, 즉 내포절의 주어가 별도의 이동 없이 제자리(in situ)에 위치하는 구문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어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비인상 구문을 일반적이고 무표적인(unmarked) 구조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다.

둘째, 한국어 화자들은 존칭 주어에 대한 존칭어미 ‘-시-’가 내포절과 주절 모두에서 생략된 (17)과 같은 문장들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점은 (16)보다 다소 낮았지만, 중립 값인 3 점보다 높은 판정을 받으면서 통제 문항의 비문보다는 정문의 평점과 더욱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의 주어 존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기존 연구들(e.g., Choe, 2004)의 결과를 재확인 시켜주었다.⁴⁾

(17)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다.

셋째, 주어 인상의 가능성 유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구문이었던 (18)에 대한 결과도 중립 값보다 높은 판정 점수였으며 이 역시 비문보다는 정문의 평점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a.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가신 것] 같으시다.

b.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간 것] 같으시다.

4)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7)과 같이 존칭 어미가 모두 생략된 구문이 주어 인상 구문인 (18)보다도 다소 높은 용인도를 보였다는 점은 이 자체만으로 후속 연구를 요하는 흥미로운 결과이며, 이는 존칭어미의 수의성(optionality)에 대한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결정적으로, 통제 문항의 비문 중 존재 불일치를 보이는 문장들의 낮은 평점과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즉, 실험 참여자들은 내포절 주어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인상하면서 주절에서 존재 일치가 일어나는 (18)과 같은 구문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척도를 통해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것 같다' 구문에서 주어 인상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엄홍준, 2010a, b; 최진선, 2016; Choi, 1988).⁵⁾

한편 존칭어미가 주절과 내포절 모두에 나타난 (18a)와 같은 구문과 주절에만 사용된 (18b)와 같은 구문 사이에서는 수용성 판단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어가 인상 될 때 내포절의 술어에서 먼저 존재 일치가 일어나고 이후에 주절의 술어에도 존칭어미가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한 심사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에 입각하여 볼 때, 인상된 주어와 주절의 술어하고만 존재 일치를 이루는 것이 더 일반적인 과정인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이는 한국어의 존칭 어미와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의 수용성 판단 결과가 한국어의 존재 일치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단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연구에서 상이한 문법성 판정을 받은 구문에 대해 수용성 판단 과정을 실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한국어의 '-것 같다' 구문에서 주어 인상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주어 인상 구문의 존재 유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인상 구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 구조,⁶⁾ 인상 이동과 관련된 흔적 및 인상 이동의 원인 등의 논의를 이끌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주어 인상 구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 5)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8)과 같은 구문들이 평균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피험자에 의해 정문으로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낮은 용인도를 보는 일부 화자도 있었다는 점은, 한국어 화자들이 두 집단으로 분화되어 주어 인상 이동에 대해 두 개의 상반된 문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한국어의 동사 이동(V-raising) 문법에 관련되어 Han et al. (2007)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으로, 제공되는 언어 입력(input)이 두 개의 문법과 모두 양립할 경우 자극의 부재(poverty of the stimulus)로 인해 기인한다. 하지만 실제로 주어 인상에 대한 두 문법이 경쟁한다면 Han et al.(2007)의 실험 결과처럼 실험 문항에 대한 피험자 개인의 응답이 1점이나 5점으로 치우쳐 양분화(bi-modal distribution)가 나타나야 하는데, 개인의 결과를 분석 해 본 결과 그에 해당하는 분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화자들이 주어 인상에 대해 두 개의 문법을 가진 두 집단으로 분화될 것이라기보다는, 주어 인상 구문에 대한 수용도가 여타 정문에 대한 수용도와는 비슷하면서도 비인상 구문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다소 덜 자연스럽게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6) 본 연구에서는 Hong(2009)을 비롯한 기존 연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인상 동사(라고 추정되는) '같다'가 영어의 'seem'처럼 보문절만을 논항으로 취하는 일항술어라는 내부 구조를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것 같다'가 복합술어로 간주되어 주어 인상의 과정 없이도 존칭어미 '-시-'가 주절과 내포절에 공히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것 같다' 구문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먼저 수반되어야하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의 몫으로 넘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용하·엄홍준. (2010). PRO에 대한 이동 분석과 한국어의 주어 올리기 구문. *현대문법연구*, 60, 21-36.
- 엄홍준. (2010a). 한국어에서의 논항 이동과 pro. *현대문법연구*, 59, 67-88.
- 엄홍준. (2010b). 재현성과 복사 인상. *언어학*, 18, 109-124.
- 엄홍준·김용하. (2009).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고찰. *언어*, 34, 583-602.
- 이정식. (2010). 순행, 역행 상승: 국어 ‘것’ 내부분열문. *언어연구*, 25(4), 775-794.
- 최진선. (2016). 한국어의 주어 인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언어연구*, 32(1), 161-178.
- Brown, L. (2011). *Korean honorifics and polite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Brown, L. (2015). Honorifics and Politeness. In L. Brown & J. Yeon (Ed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pp. 303-319). Malden, MA: Wiley-Blackwell.
- Choe, H.-S.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Boston, MA.
- Choe, J.-W. (2004). Obligatory honorification and the honorific featur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4(4), 545-559.
- Choi, Y.-S. (1988). *A study of ascension constructions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I.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Han, C.-H., Lidz, J., & Musolino, J. (2007). V-raising and grammar competition in Korean. Evidence from negation and quantifier scope. *Linguistic Inquiry*, 38(1), 1-47.
- Hong, S. (2009). Sentential subjects, subjectless constructions, and phasehood.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9(3), 373-397.
- Kang, M.-Y.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Boston, MA.
- Kim, D., & Kim, Y.-H. (2003). Korean ECM constructions and the theory of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47-77.
- Kim, J.-B., & Sells, P. (2007). Korean honorification: A kind of expressive meaning.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6(4), 303-336.
- Koopman, H. (200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syntactic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6(4), 601-633.

- Lee, H. (2007). A raising-to-object analysis of Korean ECM construc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7, 363-398.
- Lim, D. (2000). *The grammar of the Korean ending si*. Seoul: Taehaksa.
- O'Grady, W. (1991). Case in Korean 'raising constructions'. *Language Research*, 27, 359-373.
- Postal, P. (1974).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 Rosenbaum, P.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 MIT Press.
- Sells, P., & Kim, J.-B. (2006). Honorification in Korean as expressive meaning. *Korean Linguistics*, 13(1), 167-195.
- Sohn, H.-M.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on, J., & Brown, L.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New York: Routledge.
- Yoon, J.-H. (2007). Raising of major arguments in Korean and Japa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5(3), 615-663.
- Yoon, J.-M. (1989). ECM and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369-382. Seoul: Hanshin.
- Yun, S. (1993). *Honorific agre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I.

최진선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전화: 02-2173-2124

이메일: jinsun@hufs.ac.kr

Received on April 17,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10, 2017

Accepted on June 30, 2017